

‘항공정비 전진기지’ 무안항공특화단지 조성 속도

부산지방항공청, 사업 계획 승인
무안국제공항 인근 35만㎡ 규모
448억 들여 2022년 완공 목표

무안군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MRO)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항공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항공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청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았다.
무안항공특화단지는 망운면 피서리 무안국제공항 인근 35만㎡에 사업비 448억원을 투입해 오는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조감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곳에는 항공 정비장과 항공물류·운항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항공 첨단산업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산단조성을 위해 MRO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국내 항공정비 기업인 국제항공정비(주)와 유럽의 항공기업인 Avia Solution Group(리투아니아) 소속 항공정비 업체 에프엘 테크닉스(FL Technics)사와 임주의항(MOA) 협약을 체결했다.
또 2020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과 각 부처별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 전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정고시 후 편입토지의 96%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0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문화재발굴 조사구역도 지난 5월 완료됐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정착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우선 행거부지(9만2000㎡)를 조성해 내년 하반기에는 항공정비를 위한 건물을 신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 산업이 정착되면 입주기업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확대는 물론 직·간접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정비 산업 경쟁력 방안’도 무안 MRO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특화단지 활성화로 무안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2만명 학살 아픔’ 영광에 6·25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제막

한국전쟁 최대 민간인 희생지역
“후손들에 희망·화합 미래 상전”

한국전쟁 당시 가장 많은 민간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광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이 전후 70여년 만에 세워졌다.
영광 지역에는 군·경 참전기념비는 있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기리는 위령탑은 처음 세워졌다.
“대한민국 통폐연감”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서 민간인 6만여명이 공산 좌익 세력에 학살당한 가운데 이중 전남지역 학살자가 4만3500여명으로 전체 72.5%를 차지한다.
다시 전남지역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영광군에서 가장 많은 2만1200여명의 민간인이 억울하게 학살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영광 염산면에서는 1만5000명의 주민 가운데 33%를 차지하는 5000여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만큼 전쟁이 남긴 아픔이 컸다.
영광군은 최근 한국전쟁 전·후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와 영광읍 우산근린공원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제막식과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영광군이 군비 6억원을 들여 건립한 위령탑은 공원 내 참배객 쉼터인 정자와 함께 지난 7월 준공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령탑 제막식은 장기간 연기됐고, 유족회와 협의를 거친 끝에 매년 11월 올리는 위령제를 앞당겨 제막식과 함께 개최했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은 지난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무고하게 학살된 민간인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건립했다.
평화와 화해, 자유수호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형물로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후손들에게 희망과 화합의 미래를 상징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늦었지만 유족들의 숙원이었던 위령탑 건립 사업이 완료돼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며 “위령탑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lyee@kwangju.co.kr



지난 21일 한국전쟁 당시 가장 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영광군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이 전후 70여년 만에 세워졌다. <영광군 제공>

완도 갯벌, 해양치유 제품으로 거듭난다

노화 염전서 채취한 머드 활용
온열 팩·도포 등 테라피에 이용

완도 갯벌에서 채취한 천연머드(진흙)가 해양치유 제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해양치유산업 관련, 광물 치유요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완도 연안의 갯벌 분포를 분석했으며 옛 노화 염전부지의 머드를 이용해 다양한 해양치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청정갯벌 머드는 천연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완도군은 지난 2017년부터 ‘백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 연구 용역’을 통해 완도 연안이 백반석으로 이뤄진 지형임을 확인하고 주요 갯벌의 안전성 여부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옛 노화염전 부지에서 다량의 퇴적층을 보이는 머드를 채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활용해 분말머드를 확보했으며 온열 팩, 도포 등 머드 테라피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 특화자원인 황칠, 비파 등과 결합한 해양치유 제품도 개발 중에 있다.
안환옥 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은 “해양치유산업은 청정한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채취되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해조류와 갯벌, 황칠, 비파 등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 갯벌에서 채취한 머드를 피부에 바르고 있다. <완도군 제공>

“이렇게 예쁜 고구마 처음”

해남군, 신품종 ‘소담미’ 호평
저장중에도 단맛·육질 유지



해남군이 고구마 신품종 ‘소담미’ <사진>로 고구마 품종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소담미는 꺾고구마 품종으로 외래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고구마이다.
전 국민 대상 신품종 이름 짓기 공모전에서 ‘생김새가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다’는 뜻으로 소담미로 이름이 붙여졌다. 기존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인 ‘호감미’, ‘진율미’가 각각 호박고구마, 밤고구마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꺾고구마인 ‘베니하루까’는 대체할 품종이 없어 국산 점유율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첫 재배를 시작한 소담미는 27일 열린 현장평가회에서 맛과 상품성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외래품종 대체 및 국산 고구마 품종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담미는 150일 재배 시 ha당 24.4t의 수확량을 보여 외래품종보다 60%가량 수량이 많았다. 장기간 저장 가능한 것은 물론 저장 중에도 단맛이 강해지고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특성이 있다. 특히 외관이 뛰어나 덩이뿌리 껍질이 자줏빛 빨간색이며 겉모양이 균일하고 매끈해 상품성이 월등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안심식당 상시 모집
연말까지 300곳 지정 추진

목포시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안심식당을 상시 모집한다.
안심식당은 일상생활 방역수칙인 음식 덜어먹기와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의 3대 실천과제를 준수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시는 신정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현판 부착을 비롯해 수저통, 덜어먹기 집게·국자 등 각종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목포시 안심식당은 현재 175개소로, 시는 연말까지 3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안심식당 지정에 희망하는 음식점은 목포시 보건위생과로 신청하면 되며, 지정 후 정기점검에서 3대 실천과제 중 1가지만도 미이행이 확인되면 지정이 취소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안심식당을 통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보다 위생적인 식사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소버지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0420 공기청정기 (138평)
DAP-0420AWJG

6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DK 다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